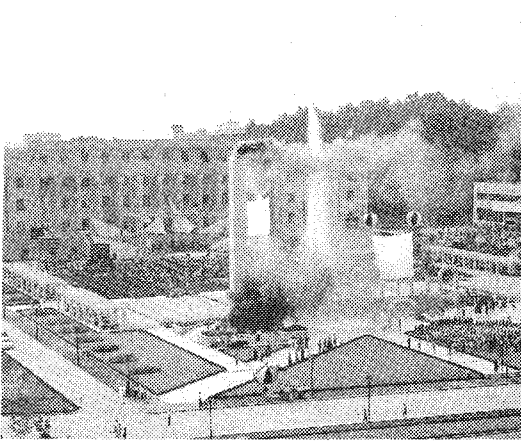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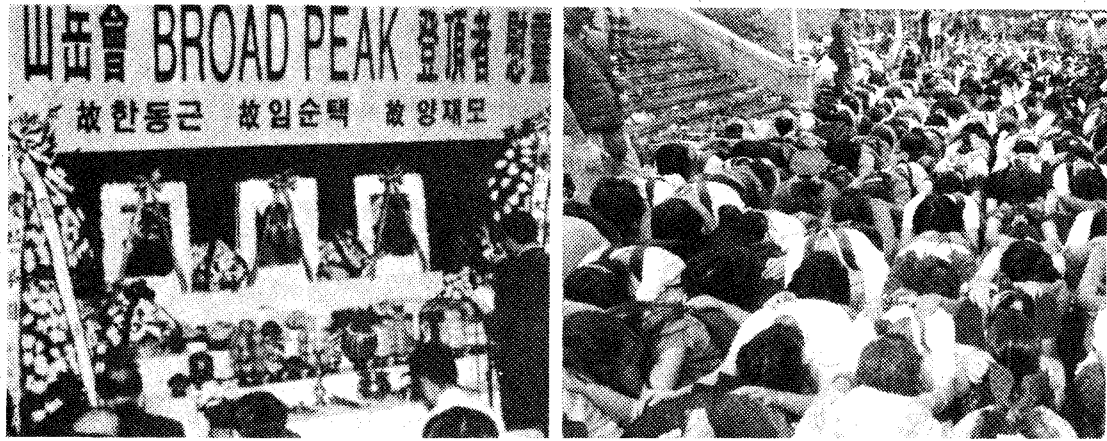




1 브로드 피크 정복후 산악대원 조난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8월 초 네팔의 한 영자신문엔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한 3명의 한국 젊은이 사진이 '조난'이라는 제목아래 실렸다.

이들은 우리학교 산악대원으로써 세계의 고봉인 브로드피크를 정복한 후 기상 악화로 전위봉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마지막 무전을 날린 뒤 소식이 끊겨 결국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이 고 한동근, 임순택, 양재모 대원이다.

경희대 산악회는 지난 93년에도 기상악화로 전위봉에서 4차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상정복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올해 반드시 정복하리라는 야망을 가지고 도전에 임했다. 결국 정상은 정복했으나 꽃다발을 받아야 할 이들은 차디찬 산봉우리에 묻혀야만 했다. 더욱이 이번 정복은 호흡곤란인 임대원을 버리고 한대원과 양대원이 살 수 있었음에도 '신의'를 묵숨과 바꾸었다는 사실에 우리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무한한 세계를 향한 도전으로 경희의 이름을 결국 정상에 꽃앰고 한동근, 임순택, 양재모 대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일깨워준 자랑스런 경희인이다.

2 평화의 날 10주년 기념 및 조영식 학원장 유엔 특별공로상 수상

올해가 유엔 세계 평화의 날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학교 조영식 학원장은 1981년 세계대학총장회의에서 '유엔 세계 평화의 날' 제정을 발의했으며 10년간의 '세계평화 구현' 공로로 지난날 24일 유엔 사상 최초의 개인상이기도 한 '유엔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평화의 날 1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국제평화회의는 우리학교가 주최했으며 '21세기 평화전략과 유엔의 역할'이라는 주제아래 유엔 조셉버너 리드 사무차장을 비롯해 구삼열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위원회 국장, 부르스 러셋 예일대학교 유엔 연구소장 등 국내외의 26명의 석학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다.

3 한총련사태관련 최대구속인원과 대학언론 탄압

올해 대학가 최대 이슈로 기록된 한총련의 '범정학련 통일대축전'은 사상유래없는 총 5천8백여명의 연행자와 5백여명 구속으로 한국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한총련학생들의 대대적인 검거선봉과 함께 대학언론탄압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평화시위를 약속했던 한총련의 통일축전 행사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면서 일어난 강경진압이었으며 대선에서의 보수표 확보를 위해 왜곡, 확대했다는 대학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학생 연행과정에서 생긴 여학생 성추행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해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으며 민주단체들의 노력으로 현재 검찰수사 중에 있다.

대부분의 대학언론들은 이번 사태의 배경과 현장보도를 2학기 개강호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으며 기획보도들을 통해 제도언론의 왜곡보도를 비판하고 학생들에게 한총련사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공동공고 등을 제작, 정부와 맞서기도 했었다.

그러나 안기부가 이적성 여부를 수사하며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대학언론을 전면 수상대상으로 올려, 각 대학에서 신문발행이 중단되는 등 한총련사태의 여파는 대학언론

대학주보가 선정한

'경희10대 뉴스'

96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12월의 중턱에서 우리신문은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96년 '경희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다.
한총련사태, 노수석군 사망, 브로드피크정복후 산악대원 조난,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 학부제 전면시행등이 포함되는 '경희 10대 뉴스'는 무슨위이다.

탄압으로 이어졌다.

한편 여론면의 백지대사보인 '소나기'에서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다루었던 동대신문사는 3명의 기자가 구속되었으며 이를 논평한 우리신문사 사실이 문제가 돼 2주간 신문제작을 거부하기도 했었다.

4 연대 노수석군 시위도중 사망

대학의 1학기를 알리는 신호탄은 뭐라해도 매년 15% 인상을 나타내는 등록금이며 학생회가 매년 등록금 협상을 하지만 결국 대학측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올해 역시 각 대학의 등록금은 두 자리수를 기록했으며 학생들은 교육재정확보투쟁의 일환으로 학기초 중요협상대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지난 3월29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요구하는 한총련 결의 대회 도중 연세대 노수석(법학)군의 죽음은 일파만파 반정부 집회, 4월 총선정국의 여소야대와 동맹추업으로 이어진 1학기 최대의 사건이었다.

학생들은 노군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졌으며 정부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진실규명을 위해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4월10일 치러진 노군 장례식은 신촌로타리와 종묘공원에서의 노제이후 다시 광주도청앞에서 노제를 가졌으며 시신은 망월동 묘역에 안장됐다.

5 학교정보화 지속적 진행

지난해 우리학교는 국내최초 PC통신 재택수업을 최초로 진행하면서 타대학보다 먼저 정보화에 앞장서 왔다.

이와같은 정보화 교육의 진행은 올해에도 지속되었는데 1학기에 있는 원격수업 전국대학 연합강의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연합강의에는 우리학교를 비롯해 전국 4개 대학(한국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이 참여했으며, 사회학개론(우리학교 담당 : 황승연 사회학과 교수) 강좌를 각 대학 담당교수가 2주간의 강의로 실시했다. 이번 수업에서는 동화상과 사진자료, 음성화일들을 활용했으며 매주 게시판토론과 채팅시간에 교수와 학생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었다.

또한 정연모(전자과) 교수팀이 개발한 무지개(MUJIGE : Multimedia Journey Into Good Education) 시스템은 '원격영상 학습시스템'으로 기존의 문자위주의 재택수업에서 상대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차세대 교육매체로서 각 언론에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밖에 삼성전자와의 산학협력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으며 서울캠퍼스의 인터넷 공간인 cyber park 개설 등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주도했다.

6 내년 학부제 전면시행

지난해부터 학내의 최대관심사인 학부제 논의가 그간의 공청회와 각계의 의견수렴으로 지난 10월25일 마침내 최종안이 확정돼 97학년도 신입생부터 이를 적용하게 되었다.

학부제는 서울캠퍼스의 경우 인문사회계열과 지리학과를 제외한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수학과를 이학부로 하는 등 총 16개학과를 7개 학부(이학부, 법학부, 경영학부, 경제통상학부, 정치행정학부, 언론정보학부, 생활과학부)로 통합했다.

수원캠퍼스는 상당한 논란을 빚었던 외국어대의 한 학부 통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그대로 존속한 채 30개 전공에 11개학부(사회과학부, 사회과학부(야) 경영학부, 자연과학부, 제1,2,3,4공학부, 생명자원과학부, 조형학부, 체육과학부)로 매듭지었다.

이러한 학부제 하의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전공교육과정은 단일전공 심화과정과 다전공 이수과정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는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7 한의대 초유의 대량 제적

우리학교 초유의 제적사태를 빚은 한의대 사태는 한의대생 뿐만 아니라 경희구성원 모두에게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아직 가시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약사의 제2차 한약조제시험과 관련하여 지난 5월24일 전한련의 파업찬반 투표에서 79.2%의 찬성으로 전면적 파업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전한련은 당시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93년까지 한약을 조제하던 약사로 한정하고 출제위원을 한의대교수로 개선할 것 △한약학과 출신에 한해서 한약사 자격을 줄

것 △한약학과를 한의대 내에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었다.

요구가 거부되자 학생들은 계속 수업거부 투쟁을 전개했으며 결국 2학기 등록을 앞두고 교육부와 힘든 줄다리기(등록연장-선별구제-등록연장-제적)를 벌여 마침내 81명의 한의대생이 제적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학교는 학정 개정등을 통해 이들을 구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 없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리라는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8 '전과' 전면 허용

내년부터 전공에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컴포스간의 전과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1일 학적과는 '97학년도 전과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희망자 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학과별 입학정원의 20%범위내에서 전, 출임을 허용하는 이번 발표는 97학년도 2학년과 3학년에 한해 전과를 허용하게 된다. 또한 계열에 상관없이 전과가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도 시행초기부터 큰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행방법은 지원자의 전적학과 평점평균에 의한 성적순위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범계학과는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예체능계는 실기고사를 거쳐 이루어질 전망이다.

9 수원캠퍼스 도서관개관과 음악회 개최

동양 최대의 도서관인 수원캠퍼스 도서관이 지난 87년 착공 이후 올해 9월17일까지 만 9년만에 도서관 앞 사색의 광장 마무리 공사를 끝으로 18일 개관식을 성대히 치루었다.

학문의 전당으로서 학교수준의 기본적인 갖대가 되는 도서관은 그 웅장함에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약 7천여평의 현대식 시설이며 1천9백여권의 열람석과 첨단 전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그 위용을 힘껏 자랑하고 있다.

한편 이날 sts 특별음악회는 세계 평화의날 기념행사로 진행됐지만 아울러 개관식에 맞춰 열렸다는 것에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0 대학 최우수평가와 국책대학원 선정

우리학교는 교육부로부터 교육개혁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총 13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지난 10월21일 교육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5개 분야중 '교육정착을 위한 학생선발' 분야에서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와 더불어 선정되었다. 이는 선발대학중 최고 금액으로 그동안 학교가 교육개혁에 나름대로 노력했던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에 만족하지 말고 계획된 개혁들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이다.

또한 우리학교는 지난해 대학평가 결과 최상위권 판정을 받아 23개 대학중 3~5위로 분석되었다. 대학원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2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학계열인 한·의·치의학 모두 최우수, 우수,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올 한해 대학경쟁력에 있어 위위를 점하는 성과를 얻었다. <취재부>

교환교수·유학·해외연수 필수품 "American Home 보험"

AMERICAN HOME 대학문화그룹 보험사업부 개설 기념

교환교수·유학·장단기 해외연수 등 해외여행시 필수적인 AMERICAN HOME은 1919년 창립된 자산규모 약90조원의 세계적인 보험그룹 AIG의 한국지사입니다. 이제 대학문화그룹이 유용하게 이용될 대학 안팎을 위한 보험사업부를 개설, 교수 교직원 대학생들께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유학이나 연수로 해외여행을 하실 경우 필수적인 여행-의료보험은 AMERICAN HOME 한국지사를 통하여 가입하시고 세계 140개국 440여 지점에서 현지통화로 신속하게 보상 받으십시오.

USIA에서 규정한 J VISA소지자에 대한 보험 가입조건

- 상해 및 질병에 의한 의료비 (MEDICAL) \$50,000이상
- 유해 분국 송환비 (REPATRIATION) \$ 7,500
- 환자 의료 격리비 (MEDICAL EVACUATION) \$10,000
- 본인부담금 (DEDUCTIBLE) \$ 500
- 신용평가기관의 (Standard & Poor's / Moody's / A.M Best / etc) 신용등급 A-이상

The Table of Premium

Coverage \ Plan		J VISA 用	기 타
Accident	Death & Impediment	\$50,000	\$50,000
	Medical Expenses	\$50,000	\$25,000
	Medical Expenses	\$50,000	\$25,000
Illness	Deductible	\$90	\$90
	Evacuation / Repatriation	\$20,000	\$20,000
1인당 연간 보험료 (Premium)	6개월	W241,450	W132,280
		W229,380	W125,670
	12개월	W416,300	W228,670
		W395,490	W219,670

(US - NetWorks)
Philadelphia, PA
Washington, D.C.
Wilmington, DE
New York, N.Y.
Chicago, IL
Atlanta, GA
Dallas, TX
Houston, TX
Los Angeles, CA
San Francisco, CA

보험료 특별 할인 혜택!

· 24시간 연중무휴 긴급지원 서비스

- AIG Assist

1. 여행전 서비스
2. 의료지원서비스
3. 여권 및 휴대품 분실시 서비스
4. 법률서비스
5. 일반지원 서비스
6. 긴급항공권 서비스

· AIG-AMERICAN HOME의 신용등급

-최고등급 부여

Standard & Poor's : AAA

Moody's : Aaa

A.M. Best Co. : A++

· 해외출장 및 연가시 보험에 관하여 궁금하신 경우 문의하여 주십시오.
(단기간의 여행일 경우에 본인 부담금 없는 전액 보상 플랜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5 % OFF



최고등급 신용 평가 보험사
AIG GROUP AIU / AMERICAN HOME ASSURANCE CO. KOREA

대학문화그룹 보험사업부 (대학전문 대리점)

TEL:(02)276-1100
호출:012-228-5304
FAX:263-2586